

# 월간 인미공

김두잔 Du Jin Kim  
김문기 Moongi Gim  
김미련(로컬포스트) Miryeon Kim(Local Post)  
김원화 Wonhwa Kim  
박민하 Minha Park  
신마정 Mi Jung Shin  
안형선(왕왕) March(WANG WANG)  
이승훈 Seunghoon Lee  
홍혜은 Hye Eun Hong

# 인미공

점멸하는 집  
Flickering  
Homes

대안적 성격의 공공 기관으로 예술인 지원 및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인미공은 2020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거를 복기, 기념했던 해는 바뀌어 이제 2021년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미공의 20년 중 지난 1년간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질병이 세계를 뒤덮었고, 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 또한 180도 바뀌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경계(境界)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무한한 세계가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들은 그것의 진실을 탐구하는 대신 이미지의 조각을 모으고 연결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하는데 협조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그 방향에 대한 기대가 '미래'로 정의되며, 사회는 새로움을 강조하고 선점하는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쇄도하는 정보량은 마치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境界)가 유연하고 허물어진 듯 보이게 하지만, 필터를 걷어 오프라인의 풍경을 관찰해보면 실상 그 어느 때보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境界)는 완강하기만 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한 지역 붕괴와 소멸 위험, 양극화, 혐오, 차별 등의 심각성은 명확한 정의나 대책 없이 가려진 채 그저 부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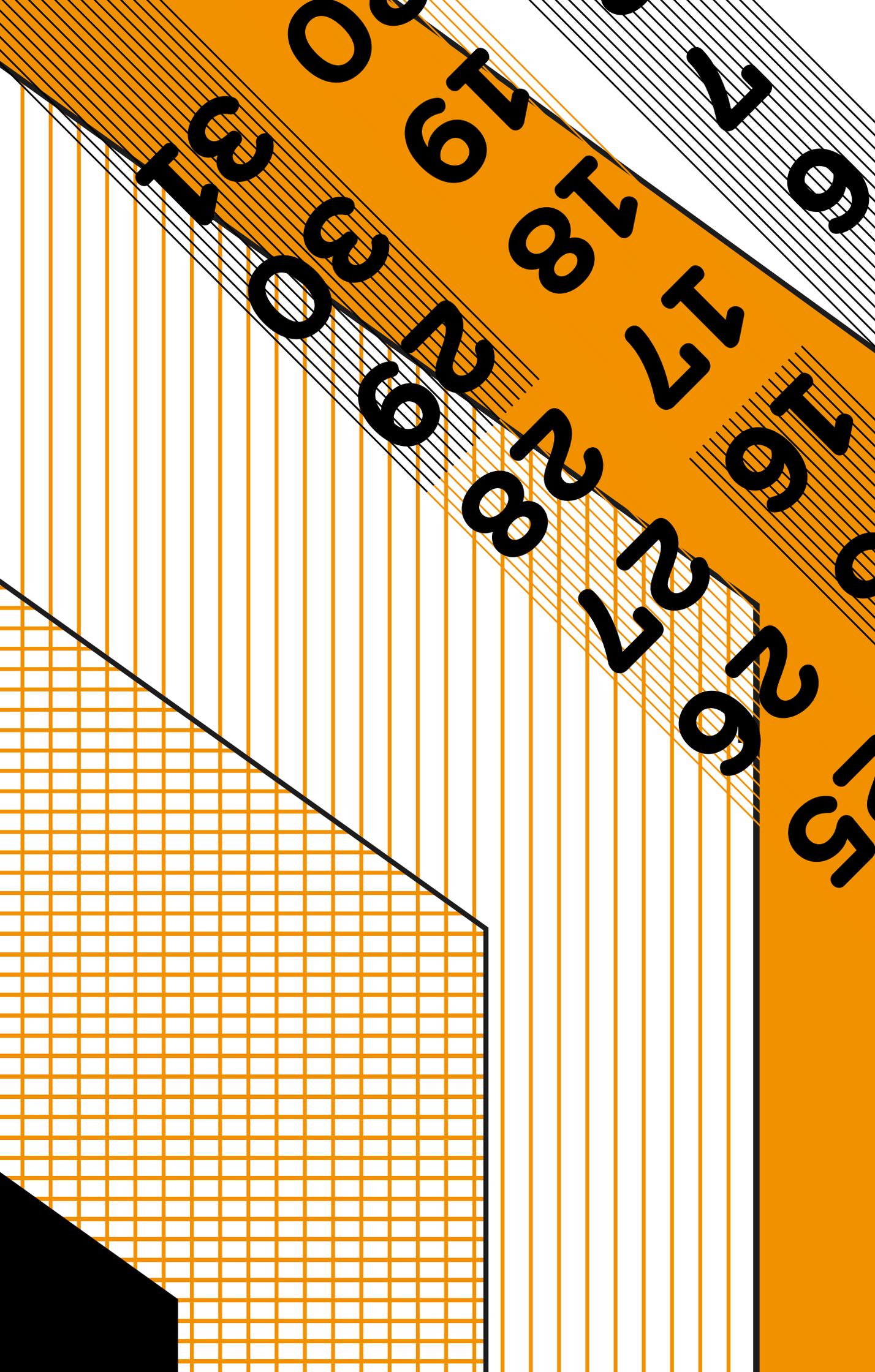
그간 공공성, 담론 형성을 강조하고 급진적 프로

젝트를 이어왔던 인미공은 계속되는 뉴노멀의 불분명함과 불투명함 사이에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인미공 2층을 활용하여, 가변적이고 느슨한 장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과거 활동에서 얻은 키워드들과 몇 개의 문제적 주제를 잇대어 인미공 2층에 늘어놓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의 이동/이주의 변화, '내' 공간을 지키는 일의 어려움, 지역/계층간 경계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존재 등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의 단면을 고찰해봅니다.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시각예술 연구-기획-발화의 역할을 재고하는 성글고 열린 테스트 베드로, 3개월 동안 매월의 주제와 창작자들의 결과물을 연결하고 충돌시키며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인미공 홈페이지([www.arko.or.kr/insa/](http://www.arko.or.kr/insa/))와 인미공 2층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인미공』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으로 점철된 오늘/미래를 매듭짓거나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를 지켜본 창작자들의 언어가 생산되고 파생, 확장되는 과정을 추동하여 인미공의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월간 인미공  
8월호

점멸하는 집

김미정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57

## 점멸

점멸(點滅)은 신호다. 신호는 어떤 상황이나 정보를 급박하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며 반복해서 빛을 송출함으로써 작동된다. 그러나 그 깜빡임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린다면 결국 그 빛은 어둠에 가려져 점멸(漸滅)한다.

지난달 『월간 인미공』 7월호는 ‘경계’를 주제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시화된 영역 구분으로의 경계와, 그 주변에서 생성된 경계(警戒)적 태도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연결하여 『월간 인미공』 8월호 《점멸하는 집》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집’이 보내는 신호와 그 의미를 훑어본다.

## 집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 중 집(宙)은 개인은 물론 가족 공동체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집은 자본 혹은 부동산으로 번역된다. 집을 통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영끌, 빚투, 휴거, 엘사 등 집과 연관된 신조어들은 차별과 혐오의 축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집의 자본주의적 가치를 평가하는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지역의 원주민들은 서울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수도권 밖에 놓인 집은 비어가는 불균형의 양태가 지속된다.



질병의 창궐로 우리는 집에 있어야 했고, 머물러



야 했다. 집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이자 안식처인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혹은 그렇게 명명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집에 머무르면서, 집은 모든 행위가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했다. 집에서 업무를 보고, 식당에 가는 대신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먹거나 요리를 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게 되고, 공간의 환기를 위한 집을 꾸며본다. 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인테리어들을 열람하고 마음에 드는 가구와 소품을 고른다. 🧺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 취향대로 미팅 공간을 만들고 아바타를 설정하여 부스스한 얼굴을 가린 채 토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집은 누군가에게는 생활과 여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집 안에 '만' 있어야 하기에 아이와 노약자의 돌봄 노동 시간이 하릴없이 늘어났고 그 노동의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한편 장애인에게 집은 제한된 이동의 범위이자 한계가 되었다. 💎 그렇게 집을 중심으로 한 '한계'는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교육 프로그램의 어색함과 학부모의 불편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격차의 심화였다. 대면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성적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시장은 전년 대비 1.5배 늘었고 가구시장은 사상최초로 소매판매액 10조원을 돌파했다. 김문선, '소비자 취향 따라... 인테리어 시장 프리미엄 가구, 가전 추세' (Platum, 2021.06.30.) <https://platum.kr/archives/165911> (2021년 7월 23일 접속).

양새롬, "1년째 집 갇혀" 푹청원 반년 만에야... 발달장애인, 백신 맞는다' (news1, 2021.06.20.) <https://www.news1.kr/articles/?4344015> (2021년 7월 23일 접속), 문광호, 이홍근, "집이 감옥 같다"... 폭염 속 코로나19 확산에 공지 물린 약자들'(경향신문, 2021.07.1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181445001> (2021년 7월 23일 접속).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원하는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과 제한과 한계로서의 집의 공간이 공존한다.

자본과 재산, 안식과 보호가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집, 혹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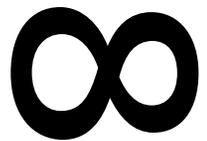
### 가족

지난 4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은 1인 가족, 비혼가정, 위탁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위해 가족의 법적 의미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부계 중심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시도이다. 변화에 발맞추겠다는 의지처럼 보이지만, 실상 팬데믹 이후 정상 가족의 형태가 여실 없이 무너지는 모습에 더 이상 특정 가족의 형태를 사회적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부모 가정, 성소수자,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시인하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의 시선을 피해,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자신만의 집을 찾아 나선다/만들어 나간다. 

### 다시, 시그널

집이 보내는 신호는 작지도, 가볍지도 않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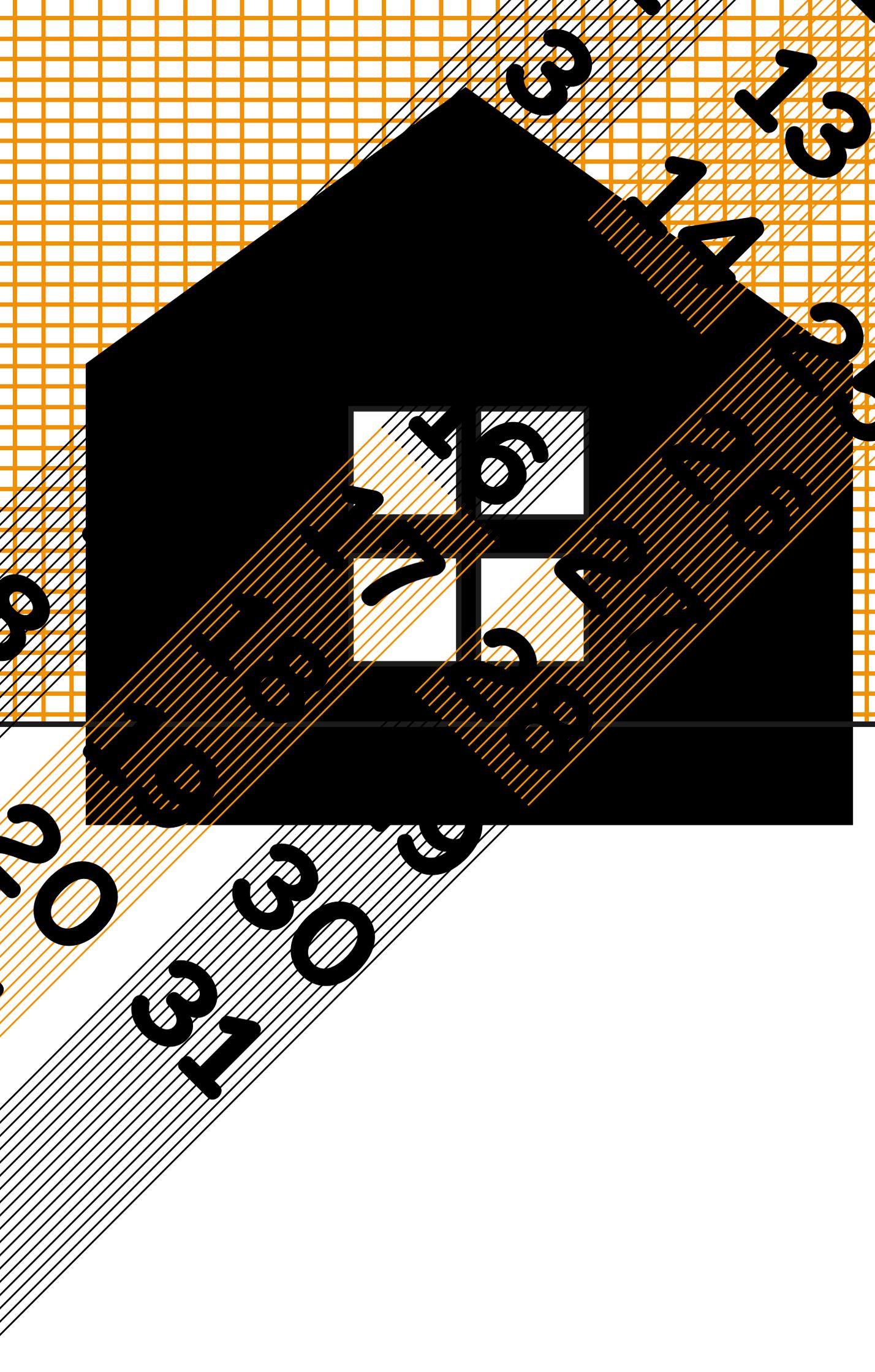
■ ‘코로나발 학력격차 보완...’서울 초·중교 기초학력 강사 배치”(연합뉴스 TV, 2021.01.05.)  
<https://www.yonhapnews-stv.co.kr/news/MYH20210105024500641?did=1825m>  
 (2021년 7월 23일 접속).



◆ 여성가족부 블로그 참조: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2021.07.07.)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423555244>  
 (2021년 7월 23일 접속).

▲ 박주연, ‘성소수자가 집 소유 비율 낮고 ‘주거불안’ 더 겪는다’(일다, 2021.07.09.)  
<https://www.ildaro.com/9087> (2021년 7월 23일 접속).

가족 공동체, 이동의 의미의 변화와 그 위기에 대한 점멸의 신호는 반복된다. 내 집을 찾아 삶의 서사를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경계의 밖에서 벌어지는 모르는 사람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상이 되었다. 이주와 정주가 고착화될 수 없는 오늘, 집은 어디에나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논픽션 '우리 모두가  
아는 집에 관한  
이야기'

-이승훈  
(작가)

12

같이 공동체  
하는 다른 사람들:  
비혼 지향생활 공동체  
공덕동 하우스  
시나몬, 니문, 흥주는  
인터뷰

-홍혜은  
(기획자, 저술가)

20

세상에 같은  
집은 없다  
(w. 집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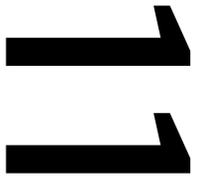
-안형선  
(젠더 프리  
브랜드 메이커 왕왕 대표)

49

동인아파트의  
기억을 현재화  
하는법

-김미련  
(로컬포스트)

56



방송과 사진을 전공했다. 주로 방송과 여러 영상을 만드는 직업으로 일을, 사진과 영상으로 작업을 한다. 사진과 영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하는 편이 좋고, 말을 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2

성형수술에 관한 작업 <On Plastic Surgery>로 처음 개인전을 했고, 이사에 관한 작업 <Moving days> 이후 한동안 집, 부동산, 재개발 등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 ‘우리 모두가 아는 집에 관한 이야기’

## 논픽션

## 이승훈 (작가)

**S**는 5년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아 마포구에 오래된 빌라를 구입했다. 결혼한 이후에만 4번째 이사였고, 그간 서울에 살면서 치른 이사를 모두 세어보면 19번째 이사였다. 그 사이 집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면 서울에서 다른 집을 구한다는 건 여전히 막막한 일이다. 작년에 바뀐 부동산 정책으

이승훈,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가변크기  
사진제공: 이승훈



로 주택 담보 대출이 어려운 요즘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집을 사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억씩 오르는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역시 아파트를 사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

**H**는 그간 작업실로 사용하던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내년 봄이면 또 다시 작업

실을 알아봐야 한다. 그간 짧게는 1년, 보통 2~3년에 한 번씩 작업실을 이리저리 옮겨왔다. 어쨌든 서울에서 작업실을 유지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내년에는 서울을 벗어나 작업실을 찾아볼까 고민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늘 보증금과 월세 부담 때문에 낡거나, 좁거나,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작업실을 찾았다. 앞으로는 좀 더 넓고,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작업실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그러려면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E**는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전문직 프리랜서로 일하며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몇 년 사이 수억씩 오르는 아파트 시세를 보면 역시 자산을 늘리는 데는 부동산 투자만 한 게 없다는 생각에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 부동산 투자 정보를 틈틈이 확인하는데 투자 관련 정보가 넘쳐나서 오히려 혼란스럽다. 누구는 오피스텔이 투자에 좋다고 하고, 누구는 단독 주택이 앞으로 가치가 있을거라 하고, 또 누구는 다세대 주택이 알짜라고 한다.

**L**은 아내와 함께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다. 결혼할 당시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렵게 전세를 구했다. 최근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5% 오른 전세값을 충당하느라 마음 고생을 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5%의 상한이 정해졌

지만, 임대사업자인 집 주인은 매번 전세값을 올려 받을 것이다. 겨우 2년 사는 동안 주변 시세가 턱없이 올라서 다른 집을 구하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을 할 때마다 오를 전세값을 생각하면 차라리 매매를 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담보대출도 어려운 지금 상황에 직장인 월급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승훈, <Moving days\_아파트를 바라보는 현주>, 2015, 잉크젯 프린트, 가변크기  
사진제공: 이승훈



**T**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서울과 워낙 시세가 다른데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에 내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와서 월세 집을 수차례 옮겨가며 스트레스를 받던 터라 낯은 아파트지만 이제 내 집이 생겼다는 안정감이 든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소식과 인근 계양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

되면서 주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덩달아 내 집값은 얼마나 오를까 기대가 부풀지만,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라는 9~10억에는 한참 못 미칠테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E**는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고향인 전주로 돌아가 부모님 소유의 집 인근 땅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5층 건물을 신축했다. 서울이라면 20평 아파트도 구입하기 힘든 비용으로 전주에서는 5층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신축한 건물 2층에 동물병원을 개업하고(E는 수의사다), 꼭대기 층인 5층에 세 아이가 충분히 뛰어 놀 만큼 넓은 집을 꾸며 거주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는 일이 있어 전주 터미널 인근에 단독 주택을 구입했다. 방이 6개나 있는 60평짜리 주택의 매매가는 2억이었다.

**R**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다년간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수익이 확실한 매물이라면 도시를 안 가리고 전국을 다니며 찾는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3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주택 200채를 돌려 임대 사업을 하는 지인도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늘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쉽게 큰 돈을 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자

신이 하는 일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R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누구나 부동산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된 것 같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용적률,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부동산 관련 용어가 익숙하고, '유동성',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경제학 용어도 어렵지 않게 들어가며 투자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물론 관심과 경험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관해서 월세든 전세든 혹은 매매로 내 집을 구하려면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문제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이다. 누군가는 맘 편히 쉴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둘이 애매하게 섞인 채로 어쩔든 꼭 필요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전세로 살고 있는 L은 10월에 있을 신도시 청약  
을 기대하고 있다. 7년 차까지 인정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에 걸리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해 분양을  
받지 못하면 당분간은 내 집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 분양  
권 거래나 시세차익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L에게 아파  
트는 세 식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집이다.  
이제 막 내 집을 갖게 된 T는 처음 가져보는 내 집을 꾸미  
는 재미를 누리며 전에 없던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 하지  
만 신도시 때문에 들쭉이는 주변 시세에 덩달아 마음이  
들쭉인다. 내 집이 생기면 끝인가 했는데 고민이 꼬리를  
문다. 전주에 살고 있는 E는 본인은 의사이고 남편은  
변호사이니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정  
작 생활은 매우 검소하게 살아도 쉽지 않다. 빈집이 넘  
쳐나는 전주에도 최근 혁신도시의 아파트 시세가 배로  
오르는 것을 보며 집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  
는 것이면 좋겠다고 한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한  
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걸까 내리는  
게 좋은걸까. 오른다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 내린다면 영끌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재  
앙이 된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아파트의 가  
격이나 이미 100%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률 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아  
닌가. 입장이 다른 L도, E도, T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방법은 없어 보이니 말이다.

언젠가 <Moving days> 작업을 본 어느 외국인이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의 나라에서 너는 어느 계층에 속하냐고. 이 작업에 관해 처음으로 받아 본 아주 인상적인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받은 이후 나의 이사 풍경에서 내가 사는 도시로, 그리고 다른 도시로, 내 주변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이사와 그들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업을 더해가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예전에 받았던 질문의 의미가 복잡해진다. 집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지언정 집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집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넘쳐나고 어디든 눈을 돌리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주변이 온통 '집'으로 넘쳐날수록 왠지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나는 집이 그냥 집이면 좋겠다.

편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결론으로 이루어진 표준형 정상가족이 통계상 몰락하는 현실 속에서 결혼을 경유하지 않은 다중다양한 친밀과 돌봄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서사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20

같이 공동체  
하는 다른  
사람들:

비혼지향생활  
공동체 공덕동  
하우스

시나몬, 니문,  
홍주는 인터뷰

홍혜은  
(기획자,  
저술가)

인터뷰어: 홍혜은(33)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구성원, 흥은동 공동체주택 거주자, 판을 만들고 기록하는 사람. '자기만의 방'을 갖고 사람을 초대하기 시작해 공동체를 만들었다. 나이 들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

시나몬(21)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구성원, 기숙사 거주자, 우당탕탕 가출 청소년. 좋은 마을에 없혀 살고 싶은데 직접 만들긴 무섭다.

탈출

집에서 나오게 된 사정은 매우 간단했지. 때는 바야흐로 1년 전? 1년 채 안 됐어. 곧 가출 1주년 파티하려고 베투고 있는 중. 작년 10월인가, 그날 내가 안방에 옷을 어질러 뵈어. 솔직히 내가 잘못된 것도 있긴 한데. 아버지의 지겨운 잔소리가 쌓이고 쌓이다 못해 터진 거지. 평소에도 내 방에 들어와서 창틀 만져보면서 먼지 있다고, 아가씨가 이래도 되냐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부르니까 아 왜요, 뭐요. 그러니까 우선 와 보라니까? 용건을 얘기를 안 하고 모라는 거야. 아바 심정은 아마 이런 거야. 와서 먼저 니가 어지른 옷가지를 보라. 나는 용건을 먼저 얘기해 줬음 좋겠는데. 여기서 부터 의견 충돌이 있었어. 결국 아, 말았어요.

21

하면서 투덜투덜 갔는데 역시 가보니까 이 옷가지 보래. 그래서 그걸 치웠어요. 그러면서 짜증 나서 이 집구석을 내가 나가야지, 싶었지. 그래서 옷을 들고 나가면서 내가 집을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 나가 이 \*\* 아! 그래서 그때부터 모기가 생겨가지고, 내 방에 잠깐 누워서 생각하다가 에이미(공덕동하우스 구성원, 학교 근처 오피스텔 거주자, 대학원생)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집에 와, 했거든. 가방을 싸는 도중에도 아버지가 너 나가서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러는 거야. 등록금도 있고 생활비도 있는데 니가 어떻게 총당할 거야? 돈 버는 내가 너를 다 먹여 살리는 건데 넌 집 못 나갈거야. 언젠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이렇게 됐지. 나도 \*\*, 들어가나 봐라. 그러가지고 모기로 여행가방을 싸서 나왔어.

에이미네 처음 가니까 에이미가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줘서 고맙다 했어. 자기집 규칙을 소개해 주고, 거주 기간도 물어봤어. 에이미한테 석 달쯤 살아도 되냐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숙사가 겨울방학이나 돼야 열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에이미네 집도 방이 하나뿐이고, 에이미가 공부량이 많은 생활 패턴도 있어서 한 달 이상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2주간 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기숙사에 사

람 적을 것 같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지.

그 후에는 학교랑 원래 하던 주말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머니까 알바 하려고 그 집에서 주말마다 지낸 거지. 6개월 정도? 같이 사는 동안에 에이미가 계속 정보를 알려줬어. 첫날에는 좀더 추워지면 겨울인데 집에서 패딩을 들고 나오라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몰래 집에 가서 패딩이랑 물건을 챙겨서 나왔지. 그때 물건들이 아직도 도움 돼.

### 공덕동하우스

나한테는 헨이(혜은)랑 처음에 만났을 때 헨이가 살던, 한 5년 전에 갔던 논현동 원룸, 거기나 지금 홍은동 전에 살던 공덕동 집. 그 공간들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진 게 공덕동하우스야. 내가 우연히 놀러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네? 그럼 친해지고. 누가 데려온 사람이랑 얘기하고. 저 사람도 공덕동하우스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인가? 재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공덕동하우스 멤버가 되면 어떻게든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된 관계라고 생각해. 공덕동하우스에서의 활동들, 다 좋았지. 우리가 만나서 밥 나눠 먹고, 무슨 일 있었다고 얘기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 좋았지. 크리스마스에 선물 공유하고, 명절에 만두 빚고

한 것도 좋았고. 사회적인 이슈도 따라 가고. 나의 미래? 미래를 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느껴져.

### 룸메는 무서워

나는 공동체를 하고는 있지만 같이 사는 건 좀...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때문에 기숙사가 텅 비었잖아.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룸메이트가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 모집 기간에, 본의는 아니었지만 문에다가 커다란 택배 상자 같은 거 두니까 누가 방을 보러 왔다가 안 들어온 거야. 좋았지.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기숙사 생활하는 얘기를 해 줬거든. 사실 나도 깔끔한 성격은 아니야. 근데 개 방은 정말 뭔지 모를 공간이야. 한번은 친구 룸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새벽에 나가야 했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준비를 일찍 할 텐데 그게 소리가 시끄러울 거 같아서, 내 친구가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내 방에서 다른 친구랑 같이 공포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 맘튼 이런 식으로 뭔가 총돌할 수밖에 없잖아. 내 공간이고 같은 돈을 내고 사는데,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싸움이 싫어. 내가 머리카락 몇 번 치웠는데 넌 안 치웠잖아, 그런 거.

사실 나는 지금도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한

달 동안 두고 곰팡이 생기고 그러는데, 룸메는 또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지하 1층 식당 공간으로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는 귀찮음. 게다가 무작위로 들어오는 룸메는 성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막 싸워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룸메 들어오는 게 무서워.

### 제안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는 친구가 있어서 룸메 하자고 했는데 안 받아 줬어. 그 말 꺼내고 나니까 친구가 저를 피하는 게 너무 보였어요. 그게 섭섭하다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무, 나는 니가 좋은 친구인데 붙어 살다 보면 사소한 걸로 싸우고 관계가 비틀어질까 봐 무서워서 나는 너랑 룸메하기 싫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걱정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하고.

하지만 개가 저랑 룸메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카톡방에 물어봐서 제안받은 대로 같이 살자고 정식으로 제안서도 정리해서 써 봤지. 그 친구랑은 같이 많은 대화를 했고, 예를 들면 샤이니 태민이 좋아, 이런. 요즘 제일 많

이 만나는 친구기도 하고, 같은 동아리 소속이고. 생활 패턴이 비슷하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회의 시간 같은 게 비슷하니까 그럼 자리를 피해줘야 하거나 하는 일도 덜할 거 같아서 애면 좋겠다 싶어. 개는 리액션도 너무 좋고, 나랑 MBTI가 같기 때문에, 개도 나도 ENFP라.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랑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랑도 싸울 경우는, 몰라. 부정적인 생각은 자세히 안 하고 싶어하는 거 같애. 제안서는 아직 근로사무실 컴퓨터에 잠들어 있어. 보여 주면 재밌어 할 거 같아서 보여줄 예정이긴 해.

### 살고 싶은 곳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 층에 나 혼자만 사는 집이면 좋겠어. 내가 씻고 다 벗고 나와도 누구도 보지 않는 생활공간이 있음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게 생활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집. 지하철, 드럭스토어, 먹고 싶은 음식점. 그리고 안전한 주거 환경. 밤에 들어갈 때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

그리고 넓은 공간이면 좋겠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굳이 어디 나가지 않아도 홈트 할 수 있게. 지금은 기숙사 침대 두 개 사이에서 운동하면 팔을 옆으로 다 못 퍼거든. 학교 체육

관은 우선 공간이 좁고, 내가 크게 뛰면 러닝머신이 흔들려. 거기까진 좋아. 지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저기 단 하나뿐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몰려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여자 공간은, 탈의실? 그 밖으로 나갔을 때 내 공간이 뭔가 없어 보여. 그냥 무시하면서 이용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선 거기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주원민은 트레이너가 몸을 너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 같아서. 그 시선이 불쾌해서 안 가. 반히 쳐다보더라고, 무안해지게. 내 가슴에 눈 달렸나? 이렇게 된 거야. 안전한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살기 싫어

지금 공덕동하무스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을 얘기 하고 있잖아. 나도 그 마을은 너무 좋은 걸. 거기 살고 싶기는 하단 말이야,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이 왜 좋냐면, 친환경적인 마을.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며 하하호호, 텃밭에서 밭일도 하고 그런 라이프 같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덜 받고. 내 생각엔 우리 마을이 정말 딱 소통을 단절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사 오면 딱 돌리고 어디 사세요? 얘기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챙겨주는 그림인 거야.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상충했어. 나 룸메 들어오는 거

너무 싫은데 같이 살자는 얘기 어떻게 나누지?

-2021. 07. 07

시나몬이 사는 기숙사 옆 생협 카페에서.

### 니문(33)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구성원, 흥은동 공동체주택 0.5인 거주자, 미술계 노동자. 자기영역에 대해 극도로 집착하면서도, 공동의 영역이 자신을 진보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0.5인

언론 인터뷰에 자주 헛갈리게 나왔지. 어디에는 비혼공동체 거주자 1인으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비거주자로 보도되기도 하는 나의 상태 그건 당연히 여기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저만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제 공간 하나는 따로 챙긴다. 아마 앞으로도 나 혼자 사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강박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릴 때도 여자 형제가 있어서,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가 성별이 다르면 늘 방이 나뉘지잖아. 독

립된 공간이 있다는 것에 익숙했지.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부모님에게서는 독립해 동생과 같이 살았는데, 우리 둘은 서로 간섭을 많이 안 하는 룸메에 가까웠고 그때도 늘 방은 분리돼 있었어. 그 시간이 2010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상태였던 거지. 관성적으로 나는 독립된 공간을 갖는 데 익숙해.

### 비효율

내 말투도 그렇지만 나는 되게 말하는 방식도 뭣도 효율적이지 않아요. 헨젤과 그레텔처럼 빵 부스러기를 놓으면서 가는 거야. 내가 빵 부스러기를 놓으면 그걸 누가 주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 플라스틱 부스러기도 가지고 다니고 또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하고 알려줄 수 있는 팻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 나 스스로는 어딘가 가는 길목마다 자꾸 뭘 설치하고 있고, 어떤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대비에 대비에 대비를 남겨 놓고 있어. 뒤돌아 보면 그냥 일직선으로 후닥 갔다 오는 게 빠를 텐데. 나도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런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게 군대예요. 나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 감정 상태가 적합한지, 쿨링하는 시간과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군대

에서는 화장실이었어. 내 공간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로 가야 됐거든, 볼 일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예상하고 비판 받거나 폭력을 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복귀. 이걸 계속 해 줘야 됐어. 이걸 안 하면 기억력도 나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도 까먹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머리가 하얘짐, 눈치를 안 보면 상황이 악화됨, 이런 몇 가지가 조합돼서 나는 무조건 아무도 없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공간이 절실했어. 생존에 가까워.

### 틸 준비

내가 언제나 틈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진짜 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야. 내가 언제나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여유를 갖고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한테 틈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여유 없는 상태로 공동체, 공간에서 더 빨리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 되면 여기서 튀어야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자체가 압박이라 진짜 튀어 버려. 2018년 그때가 그 압박 상태 비슷한 거였어. 당시 하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안정적으로 장기간 인生在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커리어 조금씩 잘 쌓고 있었고, 관계도 안정적이었고. 변수들이 제어되고 있어 안정감을 얻었고, 이 공동체랑 이 공간(공덕동)에 어떻게든 오래 남겠지. 그래서 된다는 상상력이 점점 흐려졌어. 이대로 가면 쪽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젖어들었어. 근데 갑자기 밀로 바빠지고 힘드니까 집안의, 공동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압박이 더 크게 느껴졌어. 나는 계속 이렇게 프레셔를 받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못 견딜 날이 올 거 같은데.

요즘은 정 안 되면 얘기하고 떠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프레셔가 낮아져. 그 상황이 되면 상대랑 얘기할 수 있고, 모케이. 나중에 튈 때 튼더라도 지금은 뭘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어.

### 원룸

홍혜은 홍주은이 사는 논현동 원룸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그때 홍혜은 애인이니까 모든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엄청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지. 그때도 CPU를 50퍼센트 이상 써 가면서, 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홍주은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내가 무례를 저지르진 않는지, 내가 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어떤 포즈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공격적이지 않은지 생각했어.

공간이 넓지 않은데 나를 아무렇지 않게 초대하는 것도 난 사실 불편했어. 홍주는 눈치가 보이니까. 홍주는 이 기이할 정도로 내켜하는 게 둘 중 하나 같았어. 내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혹은 홍주는 속으로 이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 근데 후자에 방점을 두고 행동했어.

나는 공덕동 이사 가고 비밀번호를 알아도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지. 늘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 보고, 너희 둘에게. 그게 원칙이었어. 나한테도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지금 홍은동 아래층 사는 사람들 방에도 잘 안 들어가고 거기 공용 작업 공간 쓰러 들어갈 때도 현관문 앞에서 니문입니다, 하고 들어가.

### 애인 동생, 친구, 가족

홍주는 이랑 친구가 되자고 한 건, 논현동 살 때 홍주는 이 퇴근하고 신사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을 때였어. 그냥 홍주는 이랑 서로 얼굴을 비추게 되니까, 홍주는 은 홍혜은한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보아하니 좋은 사람이

니까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자주 만나는 세 사람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게 친구가 되자고 했던 건데, 내가 주은이한테 먼저 제안했어. 공덕동하우스의 전신인 관계들 안에서 여러 액션이 이루어지던 상당히 초반인데, 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부듯해하는 액션 중 하나가 그거야.

근데 그럼에도 초인종을 누르는 건 다른 일이야. 언제부터 편하게 들어가게 됐냐면 매번 초인종을 누르면서 들어가다가, 어느샌가 홍주은이랑 말을 놓고, 개가 초인종을 안 눌러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 같애. 참고로 그때 주은애민은 현관문 뽁뽁뽁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걸 보고 어쨌든 나는 초인종 누르고 들어갈 거야, 하고 생각했어.

언제 가족이 됐냐는 질문은 나한테 애매해. 어떤 특별한 이벤트, 사건, 다짐이 있진 않았어. 내가 하던 방식대로 천천히 안전장치를 설치하면서, 뇌관을 해체하면서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 근데 아무튼 뭔가 합의가 되어서 들어가서 살게 됐고, 초인종을 안 눌러도 되는 사람이 되고, 기억이 잘 나진 않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 공간 증식

쫘이 씨(공덕동하무스 구성원, 홍은동 공동체주택 거주자, 건축전공자)가 공덕동 살 때 고시원 알바하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나보고 과심하다고 했었지. 나는 해방촌, 공덕동, 작업실, 레지던시에 공간이 있었지. 레지던시는 근 15평, 20평 되는 아파트 그거는, 과심한 건 맞을 수 있는데 할 말은 있어.

해방촌 집이 동생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내 공간이 사라져갔어. 그 집이 마루도 꽤 넓고 쓰리룸이었는데, 동생 방, 내 방, 옷방, 거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동생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옷방이 준비한 기기, 박스, 포장재로 채워지고 거실 마루엔 밀가루포대, 설탕, 아몬드 가루 별별 재료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내 방 하나가 나한테 남는 공간인데, 그 방은 엄청 작고 좁아. 그래도 가급적 동생한테 공간을 몰아 주고 싶었어. 하고 싶은 거 빨리 했으면 해서. 그래서 친구랑 2018년부터 이대 근처에 공동작업실을 만들었지. 그게 공간 증식의 시작이었어.

이 작업실 계약기간이 마무리 될 쯤 친구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실이 생긴 거야. 근데 거기 월세를 혼자 내기엔 부담이 되고. 이미 그 집은 내 조그만 방에 절대 못 구겨넣어. 그

리고 사실 나는 업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약서를 쓰거나, 이럴 공간이 필요해. 카페에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카페는 많은 프리랜서가 생각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열지, 닫을지, 콘센트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은 웬 취객이 올지 안 올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커피값 아껴서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해방촌에 더 쪼그매졌지만 작업실 공간을 하나 마련했지.

그리고 레지던시는 성격이 좀 달라. 미술계에서 그건 경력으로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상 및 레지던시라고 이력에서 따로 분류가 돼. 이와 같은 이유로 졸지에 공간이 네 개가 됐지. 근데 네 번째 공간은 거의 못 갔어. 멀어서. 거기 가면 2박 3일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주말에 밥 당번 하고 그래야 하는데. 물론 내 자체가 공간을 좀 여러 군데에 흩뿌려 놓고, 여러 공간을 거점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야.

### 공용공간

나한테 공용공간은 내 태도를 진보시킬 수 있는 제안이야. 내가 이 안에서 용기를 내서 참여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업무량을 파악해야 하고, 어떨 땐

능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나한테는 불편한 공간이지만 참여해야 내가 개선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

그래서 그냥 편하자고 하면 여기 홍은동 집에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애인이 운명하는 공용공간에 놀러간다는 개념으로 있는 게 편해. 내겐 편한 손님 자세지. 조금 수동적인 것. 일을 조금 도와주고, 손님이 남의 집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나이스한 거잖아.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공간의 일부로 함께하고 가사를 나누는 건 나에게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내 처리에 대한 생각도 거의 몇 배나 더 많아져. 근데 내가 거주하는 참여자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내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야.

### 홈 home

이 중에서 내 집, 홈? 아, 어렵다. 홍은동 집이랑 염리동 집 둘 다 홈인데 용도가 달라. 여기는 같이 사는 공간, 돌봄 받고 돌봄 주는 공간. 염리동 집은 혼자 있는 공간, 혼자 작업하는 공간. 물론 동생이랑 떨어져서 이사할 땐 해방촌에 있던 작업실이랑 집을 합치는 게 목적이긴 했어. 그래서 이름도 염리동 집이라고도 하

고, 작업실이라고도 하고. 박세게 작업할 게 있음 거기 가서 하고.

여러분에 비해 제가 부자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유구무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은 있어. 늘 마음에 빛이 있으면서, 그래서 유언장에 일부러 할당을 정해 놔는데, 내 부동산 자산은 모두 홍은동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 아직 방은 됐어

공동 생활하는 공간에 내 방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고? 그럼 나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 홍혜은만 나랑 방 같이 쓰는 게 괜찮다면 안 만들어 주면 좋겠다. 공용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홍은동에서 방을 각각 쓰게 된 건 좋아. 좋은 영향을 줬고, 같이 사는 네 명 모두에게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해. 공덕동 살 때부터 혜은 빼고 나머지는 개인 공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홍혜은이 개인 공간 갖는 걸 거의 자본주의자들의 획책처럼 얘기해서 나도 함부로 말을 못 꺼냈지만, 홍혜은이 어디 양평 같은 데 땅 사서 마을을 만들면 어떠냐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괜찮은 구석도 있지만 나 큰일났다는 생각도 했어. 그럼 또 그 넓은 공간을, 나 주말 농사 지

어야 되고 그때 홍주은이 계속 내 방 갖고 싶다고 주장하니까 홍혜은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은이랑 둘이 우리 거기다가 컨테이너 같은 거 사서 각자 방 만들자고 몰래 얘기했어. 그건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집을 공동 자산으로 마련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나는 오히려 괜찮아. 근데 나한테는 공간이 완전 분리가 안 되는 건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일이야.

-2021. 07. 04

니문의 또 다른 공간을 보러 간 홍제천변 부동산 옆 본솔 커피에서.

### 홍주은(28)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구성원, 독일에 갔다 온 홍은동 공동체주택 거주자, 구체적인 삶을 사는데 관심이 있는 활동단체 직장인. 베를린에서 커틀러리 세트를 가지고 왔다.

### 서울 정착

내가 3학년이 돼서 병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병원 실습하는 데가 세 군데 다 서울 소재 병원이어서. 마침 헨이가 방을 서울에 얻었

어가지고, 내가 한번 놀러 갔었나? 실습처 정할 때부터 우리 학교 사람들이 다 서울 소재로 가기도 하고, 나도 서울에서 실습하는 게 부대낌이 없었어. 헨이 서울 사니까.

나는 그때 수원에 있는 교회 학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실습하는 데까지 거리가 머니까 자연스럽게 헨이한테 부탁해서 당분간 산다고 했지.

들이 살면서 헨이가 너무 언니처럼 하는 게 일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헨이는 언니 역할을 잘하잖아. 밥을 챙겨준다든지, 도시락을 싸 준다든지. 예를 들어 실습 나갈 때도 헨이가 보온 도시락을 사 가지고, 거기에 밥을 싸 가지고 점심을 먹으라고 하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도시락을 잘 못 싸 오는 사람이랑 먹으라고 넉넉하게 싸 주기도 하고 그랬지.

세 달 그렇게 살다가 놀러 앉게 된 거야. 근데 딱히 헨이도 뭐라 하지 않았던 거 같아. 나도 그 좁은 원룸에 어떻게 계속 둘이 살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 학사에서도 룸메가 있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방을 세어하는 사이였고, 그 외의 선택지가 없었잖아.

공덕동으로 이사하고 나서 공간이 늘어나

용도별로 분류해서 침실과 생활 공간, 작업하는 책상 등으로 분리해서 살게 되니까, 아 이렇게 방이 좀 나뉘져 있는 게 편하구나. 공간이 더 많은 상상력이 생기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건 나중에 누려보고 나서 알았던 거 같애.

만약에 지금 다시 원룸에 돌아 살라고 하면 절대 안 하겠지.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내 공간은 없었지. 그 공간은 헨이 거였고, 헨이랑 관계 맺는 사람들이 놀러 왔고. 그 안에서 나는 나만의 것을 상상하거나, 관계를 만들어 나가진 못했던 거 같애.

### 베를린으로

독일에 처음 가게 된 건 그냥 외국에서 살아 보고 싶단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 그 이유는, 안 살아 봤으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하며 얻는 경험이 나한테 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

거기서 공간을 얻기까지는 진짜 힘들었어. 나는 한국에서 독일 가면 한 달 동안 살 집만 구해서 간 거야. 한 달이면 다음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백 군데 정도 다른 집에 어플라이했던 거 같아. 나는 외국 생활을 한다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만나서 부대끼면서 사는 걸로

상상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모여 사는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덴마크인은 덴마크인끼리, 대만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보편적이더라고. 워낙 베를린에서 방 구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알음알음 집을 구해서 사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고 그때 몰랐지. 다국적 베게(WG **Wohngemeinschaft**)라고, 주거공동체에 계속 어플라이를 했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서 어플라이 해도 인터뷰 잡히는 경우가 너무 드물고, 인터뷰가 잡혔는데 노쇼가 된 적도 있어. 거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비도 내리고 배도 고파서 힘들었던 적도 있어. 무임금으로 자기 아이를 봐달라는 옐로 피버도 만나고. 붙었는데 다른 일 하다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가게 된 적도 있고.

### 1인분의 생활 감각

처음 한 달 살게 된 집은, 쉐네베르크(**Schneberg**)라는 곳에 있었어. 거기서 베를린에서 장기 거주할 거주지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생활 감각, 그런 걸 기르는 역할을 했던 거 같아.

거기는 마트 같은 곳도 되게 많아서, 내가 진짜 좋아하던 테카막스(**TK Maxx**)도 도보나 자전거로 갈 수 있었어. 거기는 한국의 아울렛 같은 덴데, 좀 괜찮은 브랜드나 신진 디자이너의

옷, 잡화를 60퍼센트 이상의 할인을 매겨서 판매했어. 옷을 많이 봤는데, 수천 벌 보면 한두 벌 정도 진짜 괜찮은 옷이 있었어. 물건을 고를 때 돈을 아끼지 않고 품질이랑 실용성을 보는 게 원칙이었어. 왜냐하면 한 달 단위로 이사 다니니까, 짐을 늘릴 수가 없잖아. 질 좋은 물건이 아니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질 좋고, 예쁘고, 옷이라면 매일매일 입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해.

두 번째로 살던 곳은 샬로텐부르크(Charlottenburg)였어. 거기엔 학교 기숙사도 두 달 살았어. 거기서는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 다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나라 음식을 해서 먹는 식사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문화권 친구들은 이렇게 해 먹는구나, 알게 됐던 거 같아. 요리를 자주 해 먹었어. 독일은 아시안 비건 푸드 메뉴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즐겨 먹어. 그걸 먹을 때는 친구들이랑 매식하고, 아닐 때는 다 해서 먹었어.

숙소 냉장고에서 거의 가로세로 30센티가 안 되는 그 공간만 내 거였어. 냉장고를 다섯 명이서 나눠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 그때그때 해 먹으니까. 거기 살면서 1인분에 맞는 식재료 관리하는 법, 구매하는 방법, 1인이 해 먹기 간단한 메뉴와 요리 방법, 그런

걸 많이 알게 된 거 같아.

이게 사실 요리하는 게, 식재료를 사고 구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 그런 감각들을 혼자 다 해 나가면서 익히게 된 거야.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몰랐는데 한식은 조미료도 세계 넣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더라. 근데 나는 다행히 특별하게 한식을 고집하는 입맛은 아니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감자 삶고 야채 볶아서 소금 후추 오일 부려먹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됐지. 그렇게 해 먹는 것도 충분히 맛있거든.

### 초대

물론 내 공간이 있단 것 자체도 되게 좋았지. 거기서 책모임 만들어가지고, 어학원 친구들 중에 내가 골라서 애다, 애야. 이 책 같이 보자고 하면 엄청 좋아할 거야! 해서 세 명이 책모임을 같이 했는데, 첫 모임 장소가 내 방이었거든. 코로나19 때문에 오래 지속하진 못했지만. 나한테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건, 누구의 초대에 선뜻 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어. 초대를 꼭 주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웬지 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대답을 하면서도 나는 우리집에 못 데리고 오는데 하는 마음이 갈호 안에 들

어가 있었어.

친한 친구가 근처에 살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나랑 관심사가 맞았어. 개가 처음으로 저녁 같이 먹자고 한 게, 어학원 끝나고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는데 둘 다 파머스 마켓 가서 유기농 야채를 고르는 거야. 둘 다 고수를 고르고 있었어. 나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너도? 나 저녁 해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오기로 했어. 너도 올래? 이렇게 초대를 받고 개네 집에 갔는데 개도 비건이라 비건 요리를 해 줬어.

개네 집에 엄청 두꺼운, 다 컬러로 인쇄된 식재료 사진이 있었어. 식재료마다 영양소가 적혀 있고, 그걸 어떻게 다듬어서 먹어야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지 적혀 있는데 진짜 갖고 싶은 거야. 이름만 알면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 15분 생활권

마지막에 구한 집이 회사랑 가까웠어. 내가 중간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잖아. 다 계산하고 집을 고른 게 아닌데, 집에 살다가 나중에 들어가게 된 회사가 걸어서 15분 거리였던 거야! 그때도 되게 행복했지. 내가 거주한 곳은 서쪽 베를린이었고, 출근길이 15분에 마주치는 공원이 세 개야. 그리고 새소리가 진짜 크게 들려. 출

근해서 독일어 잘 못 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출퇴근이 한적하고 여유로워서 좋았어.

베를린이 면적으로는 서울보다 큰데, 도보로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는 도시거든. 꼭 필요한 시설이 다 도보 안에 있어. 마트, 공원, 약국, 병원, 나한테 필요한 건 다 걸거나 자전거 타면 갈 수 있었어. 출퇴근도 걸어서 했고. 그 위치성, 그 마을과 장소의 위치성이 내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 공원과 달리기 모임

독일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취미 모임을 어플로 많이 찾고 나가고 하거든. 그래서 나도 이 집에 살 때 어플로 찾아서 클라이밍 모임도 나가고, 달리기 소모임도 나가고 했는데, 그 중 너무 좋았던 게 템펠호프 달리기 모임이었어.

템펠호프라는 공원은 베를린처럼 큰 나라 수도에는 있을 수 없을 만한 큰 공원이거든. 도시에 공간을 그렇게 넓게 남겨두는 게 낭비 같고 어려운 일이잖아. 세계 2차대전 전에 만든 공항이었다고 하는데, 달고 나서 그게 그대로 공원이 된 거야. 주민들의 의견으로 그렇게 공원이 유지됐대. 한국이면 재개발 하자고 했을 거

같은데. 가 보면 놀라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공원이야. 거기를 뛰면 진짜 여기가 베를린이구나, 싶어. 거기를 다 뛰면 8킬로 정도 되거든.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달리기를 했어.

거기서도 돌봄을 많이 받았어. 체력이 되니까 8킬로를 같이 뛸 수는 있었지만, 달리기를 처음 해 보잖아. 외국인이고. 근데 소모임에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엄청 배려해 줬어. 조금 힘들어서 쉬려고 하면 계속 옆에서 따라와서 같이 뛰게도 해 주고, 페이스 잡아 주고 해서, 혼자 달리는 건 힘들어도 같이 달리는 건 괜찮잖아. 그런 곳이었어.

### 가지고 온 것

나는 전에 공동생활을 하면 내가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다녀 와서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영향이란 게 있단 걸 알게 됐고, 그게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 거야.

대표적인 게 커틀러리 세트였어. 수저가 있는데 커틀러리 세트가 또 왜 필요해? 라고 헨이가 물었잖아. 당시에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지금 그걸로 우리가 해 먹

을 수 있는 요리가 다양해졌잖아. 야채를 간단히 조리 해 먹거나, 파스타도 자주 해 먹고, 뷔페식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홍제천 달리기 모임. 코로나19 심해지기 전에 열심히 했잖아. 일요일마다 홍제천을 달렸지. 그래도 나름 몇 달 먼저 달려본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달려 나갔다가도 뒤쳐져 달리는 사람, 헨이 옆에 다시 돌아가서 달려주는 역할을 했잖아. 이런 친절함을 배워 온 거야.

나는 정말 내가 가진 용기에 대해 되게 많이 긍정하게 됐어. 해외에 나가 사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생존력과 돌봄력이 있는 사람. 내가 나를 돌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게 되게 큰 수확이야. 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애.

### 뒷배, 토양

공덕동하무스는 밖에 나가 살면서도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됐지. 나한테 뒷배가 있는 느낌인 거지.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다들 말을 피상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잖아? 특히 헨이나, 에이미는. 그래서 언제나 힘

든 상황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함께 고민을 해 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줬어.

나는 너희랑 같이 살면서는 그게 자원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었어. 그냥 가지고 있던 거고, 선택한 게 아니었잖아. 나한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다가, 독일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지. 함께 산다는 것,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기는 지금, 그냥 힘 빼고도 잘 살 수 있게 짜여진 삶의 터이자 안전망? 잘 살고 싶은데 힘을 너무 주고 싶진 않은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비장해지면 이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 지금 사는 게 많이 안정적이어졌는데, 이 안정감을 기반으로 힘을 빼고 삶을 꾸려 나가면 그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더 잘 맺어가게 되는 거 같아. 앞으로의 내 삶에 대해서도 더 넓게 상상할 수 있고. 여기는 토양 같은 거야. 즐기도 많이 내고 잎도 많이 낼 수 있는 곳. 뭔지 알지?

-2021. 07. 03

살림 팽팽여성주의학교 들으러 가기 전, 1층 카페 쿠아레비에서.

사업가 부모님 밑에서 '사업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개념을 얻으면  
뭘하니. 직장생활 때려치고 창업해버린 걸.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  
의 삶"에 불만이 많더니, 사업도 여성 직업 다양성을 위해 하고 있다.

# 49

오죽하면 영문 이름이 March인 이유 중 하나가 3월 8일이 <세계 여성  
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물론 업계 유리천장을 부수기 위해 물류 서비스  
를 창업했고, 자취할 때 남성 수리기가 수행하는 서비스가 불편해서  
집수리 서비스를 만들었다. 삶의 불편함을 사업으로 해소하려는 신박한  
사람이다.

# 세상에 같은 집은 없다 (w. 집수리)

# 안형선 (젠더 프리 브랜드 메이커 왕왕 대표)

나는 까칠한 MZ세대 1인 여성가구 가장이다. 대인관계에 필요 이상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집수리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고객 개인에 대한 선부른 추측이나 짐작을 하지 않는 프로페셔널이 되기로 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2년쯤 되었다. 여전히 고객과는 사담을 나누지 않고, 무의미하게 고객의 집을 둘러보지도 않는다. 참견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타인의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다. 고객과 굳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을 둘러보지 않아도, 분위기를 통해 그 집과 사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알아 두는 편이 업무에 더 좋다는 것도.

예로 어떤 고객은 습식 화장실인데도 건식으로 사용한다. 그럼 고객은 습기에 민감하고 환기를 잘 시키는 사람일 것이다. 그 집의 환경이 나에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러주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시공 후 화장실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뒷정리를 할 것이다. 또 고객의 사용 습관을 고려하여 수리한 곳을 관

리할 때에 어느 정도의 온습도가 적정한지 안내하겠지.

사람은 공간을 완성하는 존재다. 아파트의 같은 라인은 구조적으로 똑같이 설계되지만, 절대 같은 집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며 밟 들었던 모든 공간은, 만난 고객의 수만큼 각각이다.

무더운 이 여름. 모두가 에어컨을 쓴다고 생각하나? 절대. 냉방기의 종류와 사용방식도 집마다 다르다. 여성 1인가구가 비슷한 면적, 비슷한 구조에 산다고 해서 같은 가풍(家風)을 갖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점이 고객에 대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포인트다.

아 참, 코로나19.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에도 인테리어 산업은 성장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을 돌보는 데에 진심이다. 그렇다 보니 집의 향이 더 짙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 여성 집수리 기술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나도 창업을 하기 전에 궁금했다. 알아보니 집수리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있더라. 그런데 으레 알지 않나? 거기 가면 수강자 대부분이 남자겠구나, 불편하겠구나 싶은거. 그래도 일단 수업은 신청했다.

우리 팀은 수업을 잘 따라갔다. 손기술, 근력,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훌륭했다. 그런 우리를 볼 때마다 강사는 말했다.

“이야~ 여자분들인데 잘 하시네~ 아니 근데 옆에 (남성)선생님은 여자분들보다도 못하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우리 팀은 수강기간 내내 이런 강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 아마 계속 비교 대상이 되어야 했던 타 수강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가 유별나게 대단한 여성이었던 게 아니다. 그저 공구를 다루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았고 수업에 진심이었을 뿐.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고 공간 인지 능력이 우수하며, 때문에 공구 숙련도도 높을 것이다’라는 가부장제의 대전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52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막 창업했을 때에 만난 건설 기능직 여성들이 겪은 부당대우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백만 번쯤 했으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건축인력 양성학교에 지원한 남성은 전원 합격시키고 남은 자리에 여성을 한 명 넣어 머릿수를 채운 일, 합격한 남성 중 의욕 없는 일부가 중도 퇴소하자 그제서야 탈락했던 여성에게 입소 기회를 준 일, 더불어 비일비재한 현상에서의 성추행.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성을 배제하거나 또는 그런 문화가 기저에 깔린 교육과정들이 만연하다. 결국 어렵게 얻은 기회임에도 성차별적 대우와 분위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팀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비전문가 여성을 위한 집수리 워크숍>을 기획했고, 매회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여성들이 기술을 다루는 데에 충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 안 보고는 절대 믿지 않겠지. 그리고 집수리할 때 몸이 얇고 유연할수록 유리하다는 거, 왜 그 동안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 시발점

나야 어렸을 때부터 공구함 여닫는 게 취미였어.

가지런한 못,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도리, 신기한 자동 줄자. 애네만 있어도 즐거웠어. 별걸 하지 않아도 매일 공구함을 만지고 정리했지. 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힘을 얻은 기분이었고, 그것들을 사용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나는 공구가 친근했어.

그런데 너는 어때? 일상에서 공구를 만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래도 혹시나 공구를 써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너는 직접 공구를 다뤘니? 아니면 주변에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겼니?

네가 누구든, 공구가 낯설면 다루기 어색할 거야.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당연하잖아. 아니면 넌 능숙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디에서 익혔니?

나는 ‘집’이 기술의 원천이라고 생각해. 어렸을 때 공구를 사용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면 난 ‘여성도 집수리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어. 또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수리기사를 할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 내 직업적 도전의 큰 발판이 된 건 ‘집’에서의 경험이야. 공구와 가까이 지낸 경험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대한 가족 구성원의 존중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야. 이 또한 가풍(家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치?

간혹 이런 말을 들어. “집을 고칠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오빠만 데리고 수리를 해서 집을 고쳐본 경험이 없어요.” 가족애는 넘친다는데, 이런 아이러니는 여전히 있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에는 부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도 용기 있게 나서서 기술적 성취를 하길 바라.

오, 거기야 거기! ‘집’이 시발점이라고~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로 학사, 영상설치로 석사, AR,Perck 교수에게 마이스터클래(수제자) 사사, 국립경북대학교 디지털미디어아트 박사과정을 하였으며 현재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대구 외 서울, 독일은 기반으로 작품활동과 독립 문화예술기획, 디원예술그룹 로컬포스트(Local Pos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In-Daegu 미디어파사드 2017》예술

56

감독, 2019년 수경청춘맨션의 《포스트 공동체 ing/1》, 2020년 '이야기 - 기차잇다'에서 경북대 주변 증강현실 동네지도제작 기획 및 실행, 2021년 《He! A new Home》(수경청춘맨션) 전시를 기획했다. 2018-2021년 동인아파트를 주제로 한 장소특정 공동체미술에 관한 커뮤니티아트 전시와 교육, 공연, 영화제 등의 프로젝트를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그룹멤버들과 기획·진행하고 있다.

# 이엔가그프의 기업가그프 동인아파트의 현재화

김미련  
(로컬포스트)

로컬포스트(Local Post)

대구의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동인동에 2012년부터 작업실을 두고 있는 로컬포스트는 6여명의 회원을 둔 다원예술가그룹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가끔은 오프라인에서 여러 국가의 작가들이 만나 서로 다른 로컬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재미난 일을 작당하는 모바일 작업놀이터와 플랫폼을 만들고 확장한다. 로컬포스트의 활동이 전통적인 예술프레임을 깨고 미술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예술언어를 교차 및 혼합해 실험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인 미디어 시대의 모마드(모바일과 노마드의 합성어)의 수행적 지대를 찾아나가는 다원예술과 소셜미디어아트, 공동체 예술의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술과 예술, 지역과 국경, 예술가와 관람자의 경계에 서거나 넘는 멀티미디어 작업과 소통과 통합에 관한 예술교육 연구가 그것이다.

특히 로컬포스트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켜 동시대 예술을 혼성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주목했다. 이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이 요구된다. 작가들은 로컬포스트를 통해서 각자의 작업을 확장하기도 하지만, 미디어의 다원적 결합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국가, 지역, 그리고 의제가 서로 다른 그룹 간의 경계를 넘어서 전 방위적으로 예술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환경을 주목했다.

이런 작업들이 예술계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실험이라면, ‘전방위예술행동네트워크(이하 예술행동네트워크)’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에 해당된다. 이 실천은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동시대적인 예술실험을 지향하고 있다. 대구지역 행동주의 예술가들, 공공적 실천을 수행하는 활동가들과 로컬포스트가 함께하고 있는 예술행동네트워크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정치적인 의제(환경, 재개발, 평화, 사회적 이슈, 표현의 자유 등)를 포괄해 왔다. 로컬포스트는 예술행동 네트워크를 통해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예술행동(2014),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 열린 민주주의 컨테이너 프로젝트(2012, 2014), 성주 소성리에서 팀과 청년사진가그룹,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한 사드배치반대 예술행동(2017),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동인아파트 아카이브프로젝트 <‘동인동인 東仁同人’\_linked> (2018~2019), <이동 없는 마을 중심의 국제영화제>를 5개 도시의 7개 마을을 이어 공동개최한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2021) 등 점점 지역 공간에 밀착하여 스며드는 활동들을 펼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localpost053.com](http://www.localpost053.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포스트가 지역에 기반하는 활동으로 zoom-in (Zoom-in) 하게 된 것은 로컬포스트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는데 동시대적인 삶의 형태와 예술의 관계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닿게 된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승사영신 送THAAD 迎新》展,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2층, 성주, 2017 ©김미련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고담 도시, ‘대구 코로나’라는 오명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구에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 프로젝트가 경제, 문화, 환경 분야를 망라하며 강조되는 것은 지역 예술가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뉴딜이 서울 이외 비수도권 다수 지역의 엄청난 영양실조 상태를 개선할 수 있으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문화, 교육, 권력의 분산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도시의 경관이 되어버린 재개발 현장  
‘동인아파트’에 살며 주민과 함께 기록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현재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든 도시의 일상을 구성하는 경관이자 현실적 풍경과 사건이 되어버렸다. 대구에서는 2030년까지 60곳에 추가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며 추가 정비 사업까지 신청 받고 있어 사업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로컬포스트 작업실에서 70미터 남짓한 거리에 이웃한 동인시영아파트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오래된 근대 아파트이자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복도식에 계단 대신 나선형 경사로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온돌방과

다락을 갖춘 내부와 복도식 구조, 연탄 운반을 위한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나선형 경사로 등은 60년대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2018년 당시 총 5개 동의 270여 가구 중 65%가 세입자이며 2019년 당시 재개발로 인해 3분의 1이 이사를 갔지만, 그 나머지는 아직도 거주하고 있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저렴하여, 대구 한복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단 대신 나선형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주차 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아파트이지만 옛날 주택의 골목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60

로컬포스트와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는 도시의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또는 ‘함께’ 사고하면서 도시의 일상과 몸에 대해 사유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각기 다른 장르를 배경으로 하는 작가들이 모여 2018년부터 동인아파트가 재개발로 사라지기 전에 근대적 건축물이 지닌 상징성과 주변지역의 역사성이 뒤섞인 공간에 대한 탐사와 함께 생활양식문화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인아파트의 재개발 전 2-3년 동안의 아카이브프로젝트는 로컬포스트가 ‘동인동인

(東仁同人)’-linked와 함께 한 행동으로서 각 개인의 삶이 꺾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변화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가능한 도시재생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했다. 

2018년 1차 프로젝트 <동인아파트-아이들의 기록>은 4월, 대구 동인동에 작업실을 둔 로컬포스트의 김미련 작가와 서예도서관을 운영하는 민승준 작가와의 대화와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동인아파트에서 2년간 글방을 운영한 서분숙 르포작가가 합세하였다. 인근 아이들과 함께 동인아파트와 주변을 탐사하고 놀이를 통해 아파트공동체의 주거형태와 문화, 도시생태의 이모저모를 아이의 시선으로 재발견하는 도시생태 교육의 형태로 서예도서관, 동인아파트 입주자 서분숙 르포작가의 글방에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예술적 손동작을 통해 아파트의 벽과 바닥, 나무 그루터기 등을 탁본(문지르기)하며 점토로 본떠 부동산 홍보전단지, 동인아파트 신문 기사를 콜라주하고 지워나가는 등의 다양한 기록물들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아이들의 탐사놀이를 통해 발견한 <동인아파트의 8경>은 사진엽서로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져 주민들에게 회신되었다.

2019년의 2차 프로젝트에서는 작가들의 시각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주민들의 인터뷰로 담았다. 이 인터뷰에는 대구

 www.dongindongin.com 을 통해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동인아파트의 개발과 재개발, 주민의 삶, 건축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인문학자 정승원의 <동인아파트 기억의 몽타주>라는 텍스트 연작과 일러스트레이터 권수정의 <동인아파트-이미지연작>의 앙상블은 동인아파트의 건축적 상징성과 역사성, 생활문화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다. ◆

<동인아파트 아이들의 8경 엽서>, 사진엽서(김미련), 엽서쓰기 시민참여 진행 (민승준), 2018-2019 ©김미련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포스터 ©배윤정

◆ <http://asq.kr/ykROcG> (2021년 8월 9일 접속).



62

조경희 작가는 <동인아파트에서 하루 밤 잠자기>라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동인아파트 1일 숙박 체험 게스트하우스를 2주간 운영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권은 물론 해외까지 알려져 예약문의가 쇄도하였다. 이색적인 불편함을 굳이 자처하는 시민들의 참여 후기와 각종 이벤트, 즉 결혼식 이벤트, 건축과 학생들의 동인아파트 내부 도면 실측이벤트, 고무줄 놀이, 공기 놀이와 함께하는 파자마파티, 마임배우의 체험기 등은 출판물로 기록되어 공유되었다. ↑

↑ <https://www.dongindongin.com/blank-6?p-gid=js104-z0403329906-6a55-4bf9-9ad4-f85745f77ea3> (2021년 8월 11일 접속).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꾸는 <행복정원>은, 옥  
죄어 오는 철거일과 반강제적 이사압박에도 아파트 내  
에서 꽃밭을 정성스레 가꾸는 2동 1호 할머니의 삶의  
호흡과 태도를 이어 김미련 작가가 제안하고, 서분숙  
작가 부부가 시작하여 주민들이 함께한 정원 가꾸기  
작업이다. 꽃씨와 서분숙 작가의 시(詩)를 게스트하우  
스 숙박객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생명의 호흡이 이어  
지게끔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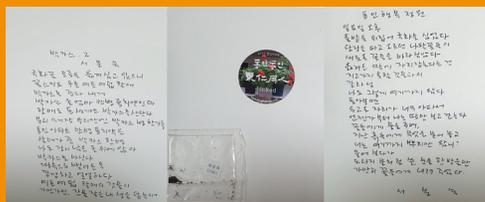
3동 나선형 계단과 외벽을 이용한 대구 메가폰 슈  
프레히콜(Daegu Megafon Sprechchor)의 <나의 살  
던 고향은>은 일곱 명의 공연자들이 검정 원피스와 핑  
크색 형광 스타킹을 착용하고 커다란 핸드 메가폰을  
통해 '집은 인권이다!'라고 합창한다. 이 퍼포먼스는 돈

의 (재)개발논리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의 거주권을 박탈하고, 인간적인 문화와 인근 생태계를 파괴하는지를 서정적이면서도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

서분숙, <행복정원> 작업전경 ©김미련

서분숙, <박카스>, <동인행복정원>, 시 텍스트, 2019 ©김미련

❖ 김기수,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 어바니즘, 미술행동, 민주주의」  
참고: <https://c11.kr/r42q> (2021년 8월 9일 접속).



3동 나선형 계단에 펼쳐지는 마을이동극장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다니엘 데룩(Daniel Derg), 손영득, 오정향, 배윤정, 허병찬이 참여하였는데 특히 독일 에센(Essen)에서 생태와 난민을 주제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데룩은 도시풍경의 비선형적 교차편집을 통해 투기의 무덤으로 폐허가 되는 거주지를 어디에나 존재할 것 같은 공간과 시제로 보여주었다.

64



다니엘 데룩, <마을이동극장> 미디어파사드, ©배윤정 [https://youtu.be/C\\_X850rDidY](https://youtu.be/C_X850rDidY) (2021년 8월 9일 접속).

한편 코로나19 이후 사는(live) 공간으로서의 집의 효용가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buy) 부동산투기의 교환가치의 상승곡선을 보면, 이정 작가의 문패작업 <東仁동인의 同人동인>이 겹쳐진다.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의 존재감을 문패에 담아, 거주자의 정체성을 다 다른 서체로 각인한 그의 작품은 인상적이다.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주권자로 권리를 갖고 자기 몫의 이름을 가지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오정향, <당신의 집은 어디십니까?> 영상설치, 2019  
©오정향

이정, <東仁동인의 同人동인>, 먹, 백합나무, 오일스텐, 10 x 25cm, 32ea, 2019  
©김미련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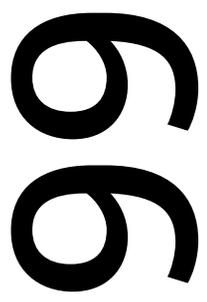
오정향의 <당신의 집은 어디십니까?>는 House와 Home의 물리적·심리적 간극을 통해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불안한 삶과 공간주권 없이 난민처럼 배제되고 부유하는 도시민, 도시공간의 경관을 콜라주하여 영상으로 보여준다.

민승준 작가가 기획하고 37도 정크아트 협동조합 (‘더쓸모 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이 아파트에 버려진 일 상품을 재활용하여 공연한 생태인형극 <동인그루터기와 백로>도 흥미롭다. 이 인형극은 파트 히말라야시다나 무에 서식하던 백로들이 베어진 나무로 인해 동지를 잃게 되는데, 동인아파트 주민들도 죽어버린 동인그루 터기에 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는 내용이다. 특정 지역에 기반한 정주와 거주권 중심 이 아니라 도시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즉 인간이든 비 인간이든 간에 공간에 대한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민승준 및 '더 쓸모 협 동조합', <동인그루터 기와 백로>

©김미련

인형극  
<https://www.youtube.com/watch?v=h2v8wsg-Vmsw>



동인아파트는 공교롭게도 공기업인 LH주택공 사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종전의 가로를 유 지하고 기본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사업(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을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한 아파트이다. 그러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과정 중 7~80% 이상이 노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사업의 내막을 잘 모르거나 회유된 상황이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LH에서 마련한 임시거주지로 주민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노인 세입자를 거부하거나, 임시거주지의 공간과 위치의 비현실성으로 주민들이 다시 일터중심 거주지를 찾아 재이사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노인, 병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제는 공간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2021년 로컬포스트와 전국 7개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시 개최한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에서 상영된 김미련 작가의 <이사의 기술>이란 실험다큐영상에서 90세 할머니의 코로나19 시기의 이주기를 통해 이러한 웃픈 모순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은 3년간의 시간을 지나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영상작업이다.

2021 고틀머리 국제마을영화제 대구지역 포스터  
©김미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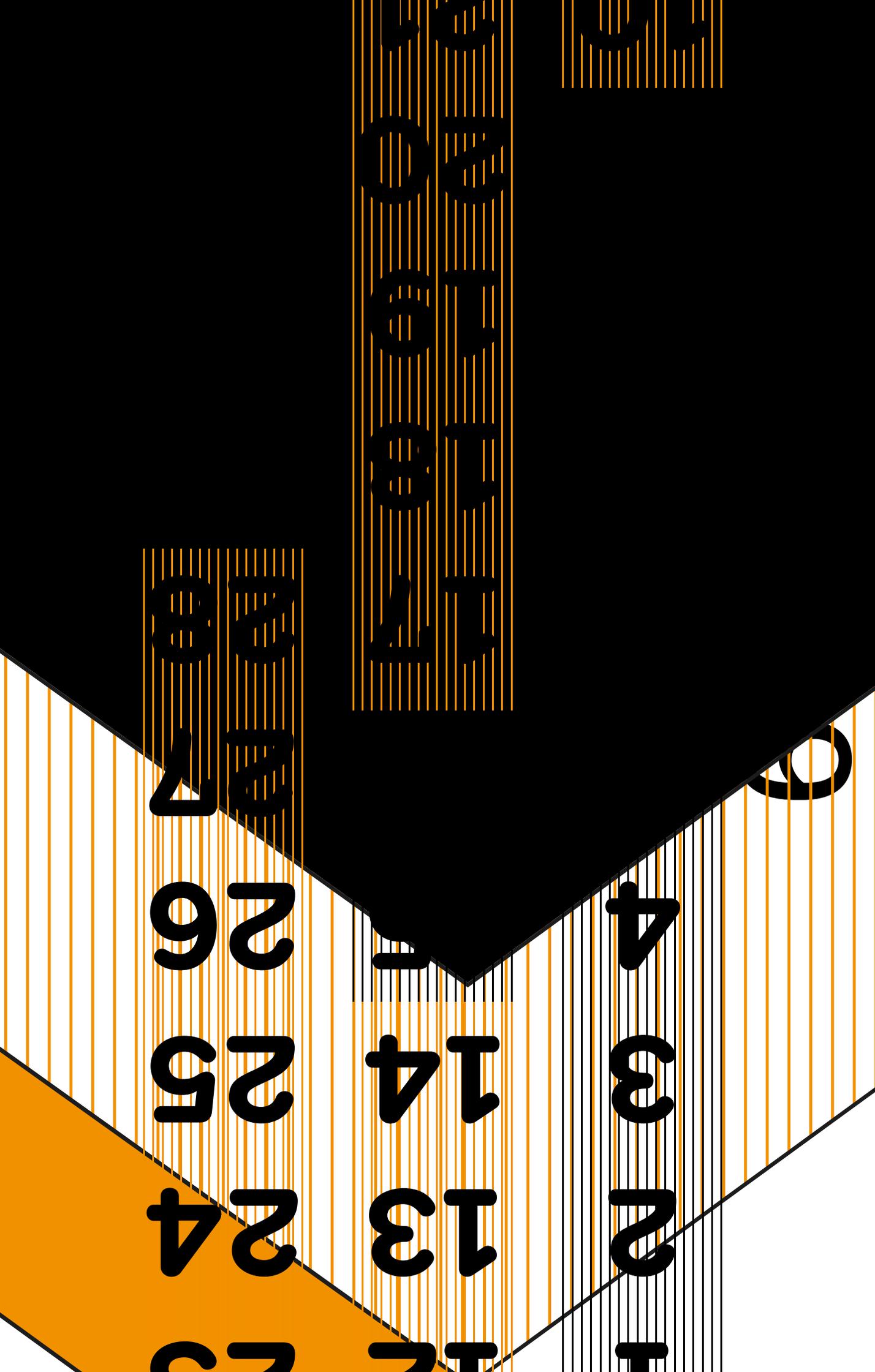
2021 아포리아 국제마을영화제, <이사의 기술> 상영 중인 인제 DMZ마을극장  
© 신지승

67



동인아파트는 2023년에 지하 2층, 지상 21층 5개 동, 373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조합원에게 272가구가 분양되고 나머지 101가구는 행복주택으로 임대한다고 한다. 로컬포스트 작업실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곧 이사를 가야 한다.

로컬포스트와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는 동인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준공될 때까지와 그 이후 주민들의 이주기와 정착기를 재개발의 기억을 공유하는 도시 공간 주권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아카이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와 공간에서 공유할 예정이며, 이러한 아카이브가 과거나 미래의 기록으로 읽히거나 남겨지는 대신 현재 시제 안에서 회자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15

20  
10  
08  
17

28  
27

00

4

5

26

3

14

25

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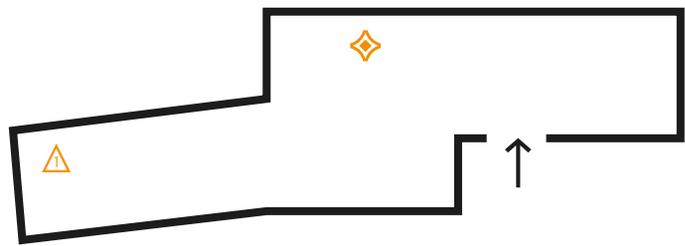
2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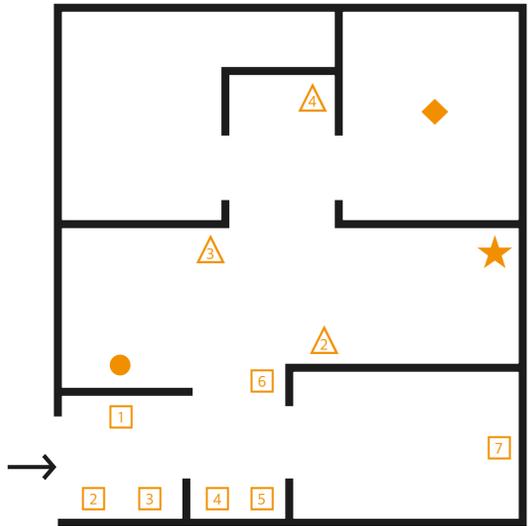
12

23

1F



2F



- ◆ 김두진, <집만한 곳은 없다>, 2002, 단채널 비디오, 3분  
Du Jin Kim, *No place like home*, 2002, single-channel video, 3min
- ◆ 김문기, <밀>, 2021, 종이에 스퀘아치테이프, 145 x 156 x 234cm  
Moongi Gim, *Meal*, 2021, scotch tape on paper, 145 x 156 x 234cm
- ★ 김원화, <방으로 침범>, 2019, 단채널 비디오, 6분 반복재생  
Wonhwa Kim, *Splash into the Room*, 2019, single-channel video, 6min loop
- 박민하, <이름 없는 날들의 꿈>, 2012, FHD, 단채널 비디오, 흑백/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9분 13초  
Minha Park, *Drömmar om Namnlösa Dagar*, 2012, FHD, single-channel video, b&w/color, stereo sound, 9min 13sec
- 1 신미정, <와우산 전경(1975)>, 디지털프린트, 130 x 35cm  
Mi Jung Shin, *An overall view of Wau mountain(1975)*, Digital print, 130 x 35cm
- 2 신미정, <밤섬 신문기사(동아일보 1993.7.1.)>, 디지털프린트, 30 x 40cm  
Mi Jung Shin, *The article about Bam Island (Dong-A Ilbo, 1993.7.1.)*, Digital print, 30 x 40cm
- 3 신미정, <울도철거주민정착주택 배치약도(1973)>,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Mi Jung Shin, *Settlement map of removed Bam Islander(1973)*, Digital print, 40 x 30cm
- 4 신미정, <밤섬 신문기사(조선일보 1968.2.4.)>, 디지털프린트, 30 x 40cm  
Mi Jung Shin, *The article about Bam Island (Chosun Ilbo, 1968.2.4.)*, Digital print, 30 x 40cm
- 5 신미정, <밤섬주거지 약도(1950)>,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Mi Jung Shin, *The map of Bam Island residential district(1950)*, Digital print, 40 x 30cm
- 6 신미정,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60)>,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Mi Jung Shin, *Map of Seoul Urban Planning(1960)*, Digital print, 40 x 30cm
- 7 신미정, <울도(栗島)>, 2020, 단채널 비디오, 19분 41초  
Mi Jung Shin, *Bam Island*, 2020, single-channel video, 19min 41sec
- 1 이승훈,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59.4 x 42cm  
Seunghoon Lee,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59.4 x 42cm
- 2 이승훈,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Seunghoon Lee,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42 x 59.4cm
- 3 이승훈,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Seunghoon Lee,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42 x 59.4cm
- 4 이승훈, <Moving days\_길에 놓인 알로카시아>, 2015,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Seunghoon Lee, *Moving days\_Alocasia on the road*, 2015, inkjet print, 42 x 59.4cm

# 김두진

# Du Jin Kim

# 71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대중문화나 포르노 같은 하위문화에서 이성애문화의 상투적인 이미지 또는 미술사 속 명화나 조각을 차용하여, 성적체성과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룬다. 회화작업부터 3D디지털이미지 기법을 활용하여 작업을 전개해나가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균열 II: 세상을 보는 눈/영원을 향한 시선》(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8-2019), 베니스비엔날레 한국특별전 《WHO IS ALICE?》(라이트 박스, 베니스, 2013), 《한국현대미술 중남미전: 박하사탕》

(칠레 산티아고현대미술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미술관, 브라질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2007) 등에 출품한 바 있다.



집만한 곳은 없다  
2002, 단채널 비디오, 3분

2008-2009 IAS 미디어 소장 작품

*No place like home*  
2002, single-channel video, 3min

2008-2009 IAS Media

영화 <오즈의 마법사>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도로시는 구두 뒤축을 세 번 부딪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집만한 곳은 없다(No place like home)”는 그리운 집으로 향하게 하는 주문이다. 작가는 이 장면만을 재생하여 인미공에 “집만한 곳은 없다”는 말이 끝없이 울리게 한다. 그러나 도로시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반복될수록 의문이 커져간다. 이 문장에 모두가 온전히 공감하는 일은 가능할까?

# 김문기 Moongi Gim

73

경제적인 조각 작업을 연구한다. 개인 전으로 《Scotch》(AlterSide, 2021)를 개최했고, 단체전 《떠다니는 것은 결국 발밑의 무언가가 되어》(임시공간, 2020), 《Corners 4: We Move We》(Keep in Touch, 2019), 《제3의 과제전》(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2019), 《박하사탕》(별관, 2019)에 참여했다.



밀  
2021, 종이에 스카치테이프, 145 x 156 x 234cm

Meal  
2021, scotch tape on paper, 145 x 156 x 234cm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는 집의 크기이다. 또한 작품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제작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료로 규모를 결정한다. 그렇게 작가의 집에서 제작된 <밀>은 인미공 2층으로 이동하여 그에 맞는 크기로 다시 변환된다. <밀>을 제대로 보려면 방에 들어가야 하기에, 누군가는 작품을 치거나 만질 것이고, 그래서 <밀>의 모습은 처음에 비해 조금씩 바뀔지도 모른다. 결국 <밀>은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가변적인 상태로 공간에 스스로를 맞춘다.

# 김원화

# Wonhwa Kim

# 75

동시대 자본주의 시스템 내 구성원들의 소외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심리적 극복을 가상현실에서 찾고자 한다. 최근 인공지능 관리 사회의 등장을 바라보며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아닌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삶이라는 유토피아적 상상을 개인의 확장된 가상 공간에서 구현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방으로 침범》(아트스페이스 그로브, 2019), 《원룸 어드벤처: 세운》(콜론비아츠, 2018)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Because of You : #This Is Us》(현대 세종 모터갤러리, 김과현씨, 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술》(오산시립미술관, 2020), 《기계-신의 탄생》(ACC, 2018) 등이 있다.



방으로 침범  
2019, 단채널 비디오, 6분 반복재생

*Splash into the Room*  
2019, single-channel video, 6min loop

76

방은 그곳에 놓인 물건을 통해 개인의 역사와 서사를 짐작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점점 좁아지고 한정된다. 방의 크기를 늘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한편으로 방은 고립된 공간이다. <방으로 침범>은 VR 영상으로, 생존과 연결된 고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각의 작은 방을 3D로 확장한다.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누군가 작성했던 수많은 이력서를 썰매삼아 3D 스캐닝으로 형성된 새로운 ‘방’으로 뛰어들면, 작고 보잘것없던 어두운 방은 게임 속 공간처럼 끝없는 서사의 층위를 생성하는 탐험의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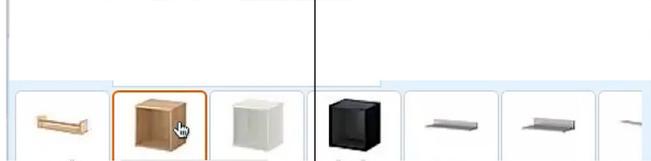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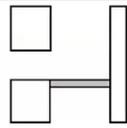
김원화 Wonhwa Kim

# 박민하

# Minha Park

설치와 영상 매체를 통해 시각 체계, 판타지/환영의 작동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서울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리움삼성미술관, 일민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시청각, 두산갤러리, 등에서 전시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 MMCA 필름&비디오, 히훈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18년 72회 에딘버러국제영화제에서 단편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 언급을 수상, 2014년 27회 이미지스 페스티벌에서 V-tape Award를 수상하였다.

77



₩42,720

이곳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름 없는 날들의 꿈  
2012, FHD, 단채널 비디오, 흑백/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9분 13초

2012 아르코미디어 소장 작품

*Drömmar om Namnlösa Dagar*  
2012, FHD, single-channel video, b&w/color,  
stereo sound, 9min 13sec

2012 ARKO Media

78

현악기의 날카로운 음색, 이케아(IKEA)가구 특유의 무난함이 주는 지루함 그리고 내레이션을 읊는 화자의 피로한 목소리가 중첩된다. 자신의 방과 동일한 사이즈의 3D 공간 안에서 가구를 이리저리 배열해보는 시뮬레이션의 과정에는 한국, LA, 캘리포니아 등 각각의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오가는 화자의 지난함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힘들게 청한 잠 사이에 등장하는 악몽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로 구성된 방의 이미지와 정교한 구성은 오히려 금방이라도 무언가 터질 것처럼 위태롭다. 여기는 낮, 저기는 새벽. 구입과 폐기가 용이한 가구처럼, 공유와 적재가 불가능한 기억과 시간이 꿈처럼 흘러간다.

박민하 Minha Park

# 신미정

# Mi Jung Shin

# 79

국내에서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디종 보자르 미술학교(National School of Art of Dijon)에서 조형예술 학, 석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매체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해왔다. 2014년 문래동의 버려진 공장에서 첫 개인전 《Self Defense》와 공장에 버려진 이주 노동자들의 개인 물품들을 수집하여 전시한 《폐공장 도난사건》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의 지방 도시인 익산(2015), 속초(2016), 대전(2017/2020), 울산(2018), 서울(2021)에 거주하며 각 지역 디아스포라의 망각된 기억을 영상으로 구현해왔다.



현재 숲이 무성하게 자란 이곳 무인도에는  
This deserted island is now covered in forest,

율도(栗島)  
2020, 단체널 비디오, 19분 41초

*Bam Island*  
2020, single-channel video, 19min 41sec

80

여의도 개발을 위해 1968년 폭발 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밤섬은 지금은 그저 무인도처럼 보이지만, 조선(造船) 등의 가업을 이으며 평화롭게 살던 밤섬 주민들의 엄연한 삶의 터전이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쫓겨나다시피 한 이주민들은 마포구 창전동으로 밀려나 그곳에서 마을과 집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 작가는 <율도>를 통해 개발의 논리로 조각났지만 다시 삶을 이어가려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의지와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을 연결한다. 이주민 이일용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밤섬과 그를 둘러싼 기억들에는, 서울 한 가운데 있음에도 갈 수 없는 가까우면서도 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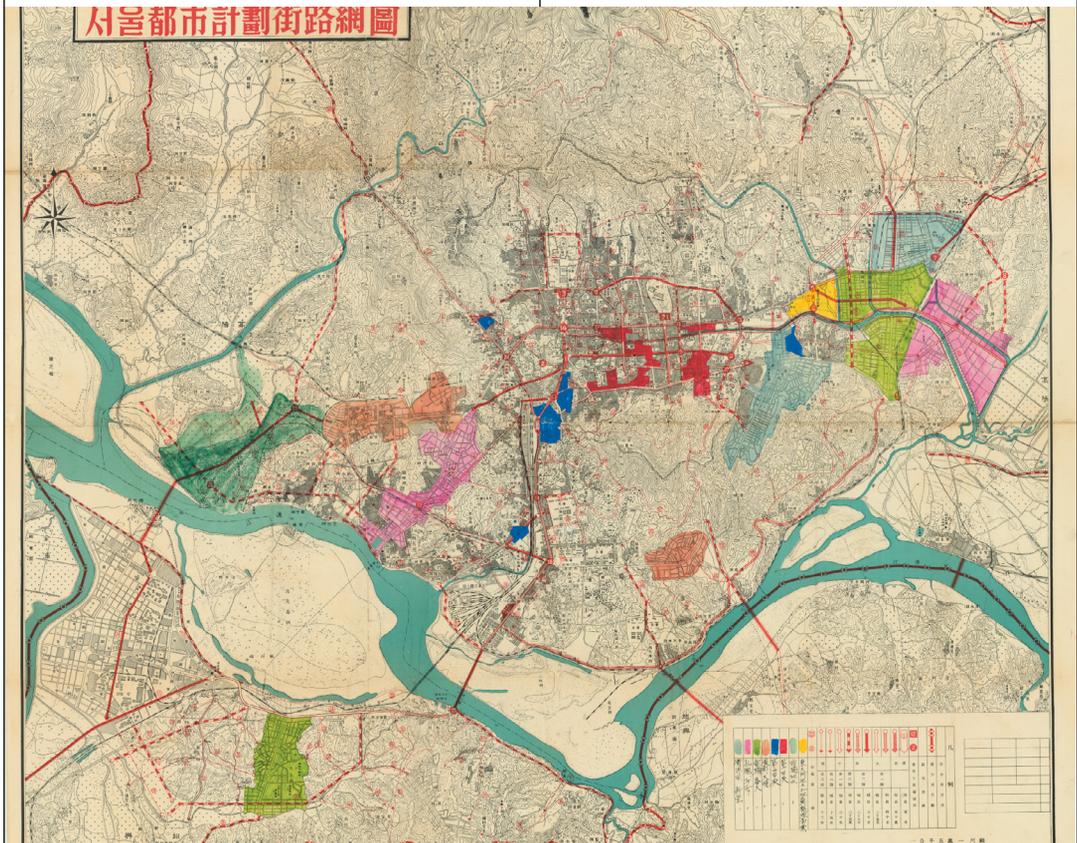
신미정 Mi Jung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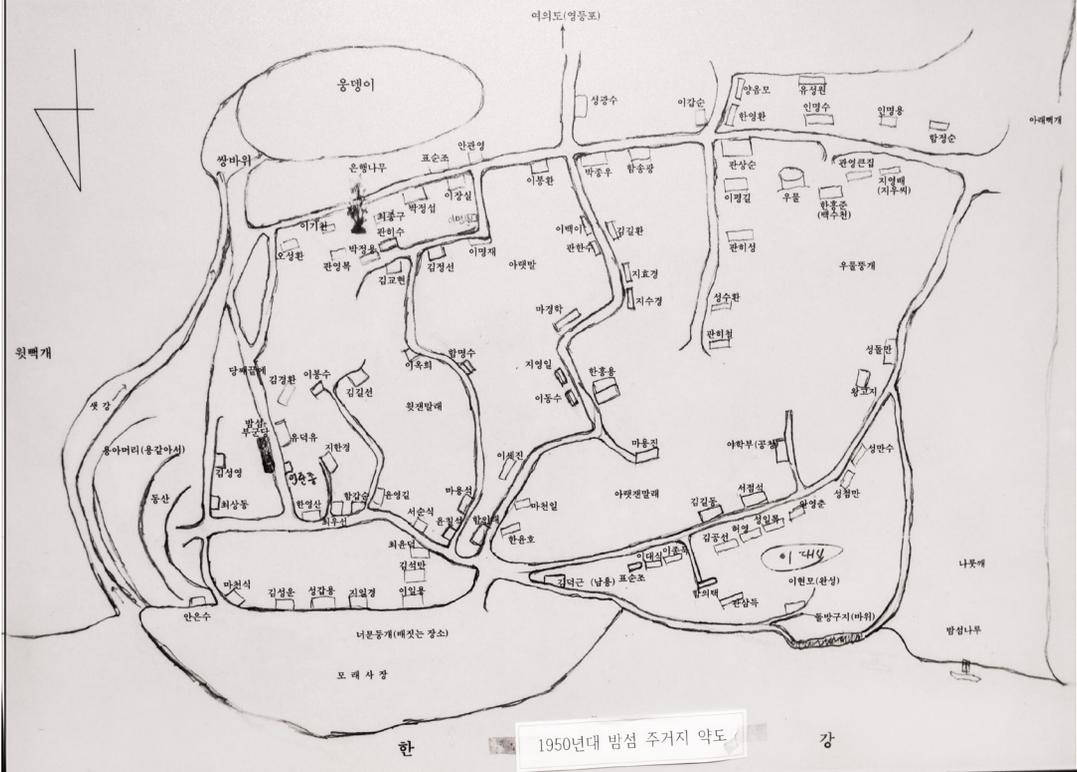
와우산 전경(1975)  
디지털프린트, 130 x 35cm

An overall view of Wau mountain(1975)  
Digital print, 130 x 35cm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1960)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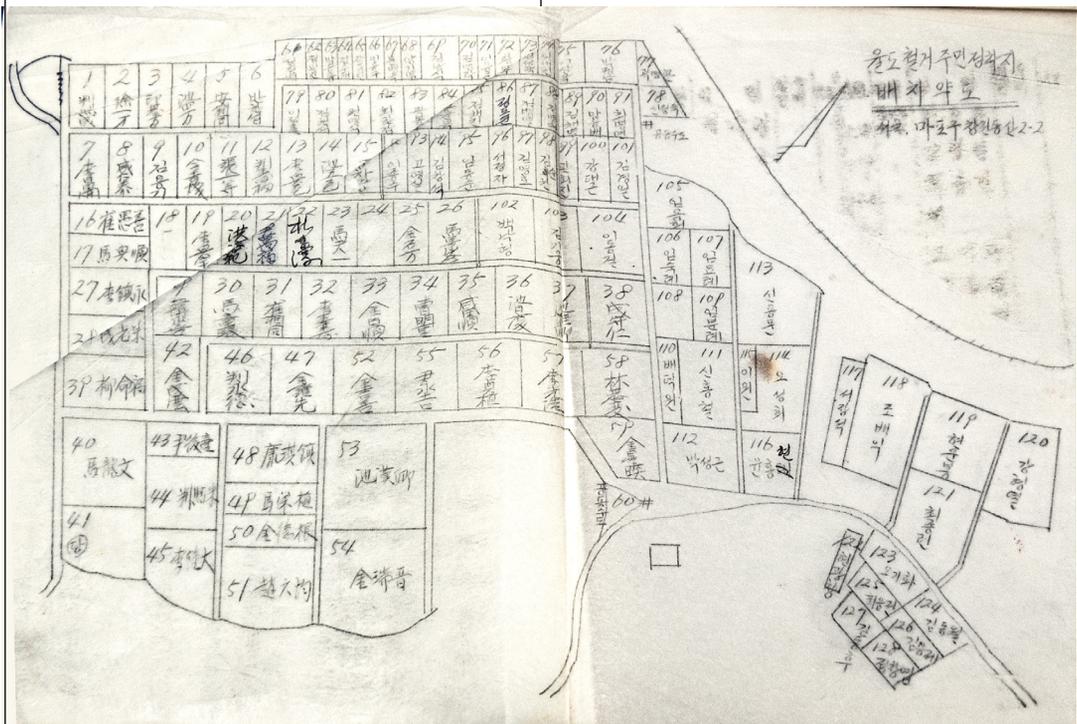
Map of Seoul Urban Planning(1960)  
Digital print, 40 x 30cm



밤섬주거지 약도(1950)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The map of Bam Island residential district(1950)  
Digital print, 40 x 30cm

83



울도철거주민정착주택 배치약도(1973)  
디지털프린트, 40 x 30cm

Settlement map of removed Bam Islander(1973)  
Digital print, 40 x 30cm

신미정 Mi Jung Shin

이승훈

Seunghoon  
Lee

84

방송과 사진을 전공했다. 주로 방송과 여러 영상을 만드는 직업으로 일함, 사진과 영상으로 작업을 한다. 사진과 영상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하는 편이 좋고, 말을 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에 관한 작업 <On Plastic Surgery>로 처음 개인전을 했고, 이사에 관한 작업 <Moving days> 이후 한동안 집, 부동산, 재개발 등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다.



Moving days\_길에 놓인 알로카시아  
2015,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Moving days\_Alocasia on the road  
2015, inkjet print, 42 x 59.4cm

언젠가 <Moving days> 작업을 본 어느 외국인이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의 나라에서 너는 어느 계층에 속하냐고. 이 작업에 관해 처음으로 받아 본 아주 인상적인 질문이었다. (...) 작업을 더해가고 사람들을 만날수록 예전에 받았던 질문의 의미가 복잡해진다. 집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지언정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집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넘쳐나고 어디든 눈을 돌리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즐비하다. 주변이 온통 '집'으로 넘쳐날수록 왠지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나는 집이 그냥 집이면 좋겠다.

- 이승훈, 「논픽션 '우리 모두가 아는 집에 관한 이야기」 중 발췌 p. 12~19.

85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59.4 x 42cm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59.4 x 42cm

86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42 x 59.4cm



88

Moving days\_급한 이사  
2016, 잉크젯 프린트, 42 x 59.4cm

*Moving days\_Pressing Moving day*  
2016, inkjet print, 42 x 59.4cm

# 월간 인미공 8월호 점멸하는 집

김두진  
김문기  
김미련(로컬포스트)  
김원화  
박민하  
신미정  
안형선(왕왕)  
이승훈  
홍혜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미술관장  
임근혜

미술관운영부장  
최혜주

큐레이터  
김미정

코디네이터  
전솔아

홍보 및 도움  
이숙진

인턴  
최윤지

그래픽디자인  
김유나

공간디자인  
홍민희

미디어설치  
올미디어

사진  
홍한나

타이틀 번역  
이혜림

인미공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89  
02-760-4721~3

ias.info@arko.or.kr

  insaartspace

운영 및 관람 시간  
화요일-토요일 11am-7pm

인미공(구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아르코미술관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신진 예술인의 창작 연구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